

“충청남도 수질총량관리센터 설립기념 워크숍” 개최

-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 주최 -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는 금강수계 관련기관을 초청하여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 설립사례와 운영방안을 소개하고 센터 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과 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시·군에서의 원활한 총량제 추진을 위하여 4월 10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충남도 이덕성 수질관리과장의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의 설립취지와 운영방안’, 이상진 총량관리센터장의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낙동강수계센터 임정훈 전문위원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개선방향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는 전국 최초로 설립된 수질관리 전담기구로써 수계별 환경조사·연구와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금강수계 4개 시·도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은 물론 금강의 수환경 관련 자료의 공유와 기술적 조정 또는 협의 역할을 하게 된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현재 8개과 12개 담당에서 분산 추진해오던 물 관련 업무를 물 통합관리 부문을 설치하여 총괄할 계획이며 총량관리센터가 수질관리의 정책적 중추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